

20
24

Photo by_Yun seuck koo

CALENDAR



SKYSUNSHINE



<http://skysunshine.kr/>
skysunshine.kr@gmail.com

Photo by_Yun seuck koo

사진과 추억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2024년도 건강하시길 바라며 正浩, 慧媛



저 가느다란 억새들은 아무리 바람이 휘몰아쳐도,
이리 기울고 저리 누우면서 계절을 비벼댄다.
변하지 않는다는 소나무도 어쩔 수 없는 나무가 있고,
계절에 안간힘 하는 억새도 겨울을 온전히 넘기기는 힘이 든다.



가끔씩 내가 찍은 사진들을 보며
접어둔 추억속의 시간들을 조금씩 들춰 본다.



2024

0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3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4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5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6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7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8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9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봄은 외투를 걸치고, 스웨터를 입고 다니는 가을 같은 봄이,
아직도 아침과 저녁은 가을속에 젖어든다.
그래도 다행히 벚꽃은 봄을 알린다.



무의식적인 시간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운 것이 었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묻히기도 한다.





반듯하게 정리 되었으면서도 유연한 곡선.
흑백으로 보아도 칼라로 보아도 다정함을 나누는 美.

01
Jan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1

January



2023

1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음12.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음12.15

26

27

28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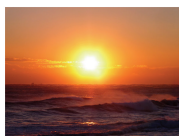
호미곶의 찬란한 햇살이 뿜어내는 빛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파도물결은
나에게 올해의 움직임을 지시한다.

02
Febr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2

February



0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3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설날/음1.1

11

12 대체휴일

13

14 밸런타인데이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음1.15

25

26

27

28

29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 왔는지 이제는 진짜로
약속하자고 자물쇠를 사서, 난간 기둥에
걸어놓고 열쇠는 산 아래에 던져 버린다.
영원할 꺼라는 약속에 꼭 꼭 자물쇠를
잠궜둔다.

03

Mar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03

March



0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4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삼일절

2

3

4

5

6

7

8

9

10 음2.1

11

12

13

14 화이트데이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음2.15
 24/31

25

26

27

28

29

30



시원스럽게 전망대를 설치하여
아래를 내려다 보게 복원된 내용을
신문에서 보고 2014년 손자들과 들려 본
재인폭포 사진이다.

지금은 모두 커서 성인이 되었지만
그날 우리 셋의 추억은 손주들에게도
나에게도 아름다운 한여름의 기억이다.

04

Apri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4

April



03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5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식목일

6

7

8

9 음3.1

10 22대 국회의원 선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음3.15

24

25

26

27

28

29

30



해마다 봄이 되면 꽃봉우리들이 만개하며 활짝 피어난다.
작년에도 그 전에도 같은 꽃들을 새로이 본것처럼,
다시는 못 볼 꽃인양 사진을 찍어댄다.
올해는 좀 더 멋진 사진을 기대하며, 이 즐거움에 따사로워진 햇살도 잊어버린다.

05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5

May



04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6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어린이날

6 대체휴일

7

8 어버이날/음4.1

9

10

11

12

13

14

15 부처님 오신 날

16

17

18

19

20

21

22 음4.15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저녁에 비 소식이 있으니
내일은 기온이 좀 떨어지겠쥬.
그러면 이꽃들은 더욱 만개가 되겠지요.

오늘이 가장 보기 좋은 때인것 같습니다.

06

Ju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³⁰	24	25	26	27	28	29

06

June



05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7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현충일/음5.1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5.15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이 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꽃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덥다고는 하여도
해가 없는 탓에 땀방울은 송곳 송곳
돌아나도 줄줄 쏟아지지 않는 탓이니
즐거운 나들이를 한 셈이지요.

07
Ju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7

July



06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8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음6.1

7

8

9

10

11

12

13

14

15 초복

16

17 제헌절

18

19

20 음6.15

21

22

23

24

25 중복

26

27

28

29

30

31



능내리 봉안마을에서 내렸다.

국도는 변한것이 없는데 팔당을 끼고 도는 물결이

대성리까지도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찢는 피악별의 서너시간은 산뜻한 공기로 내 몸과 마음까지 더위를 잊게한다.

08
Augu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8

August



07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9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음7.1

5

6

7

8

9

10

11

12

13

14
말복15
광복절

16

17

18
음7.15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삼각대를 가져와야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바람에 차에 놔두고 와서
타임 조절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에 만족합니다.
빗방울 머금은 백일홍의 모습은 너무 아리따웠으니까요.

09
Sept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9

September



08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_{음8.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_{추석/음8.15}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오늘은 많은 시간을 여유있는
공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나만의 사고에 파묻히며,
핸드폰 음악에 흘러 흘러
돌어가리라 하였던건만, 마음보다
기록으로 남기고픈 마음이 앞선다.

결국 또 카메라를 들고 이산 저산
기웃거린다.

10
Octo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October



09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개천절/음9.1

4

5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음9.15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따라 풍경은 수시로 변하여 좋은
기회를 놓칠까 망설이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나중에 보면 별것 아닌 사진이 되어
버렸을지라도 그 사진 속에는 지나간 그
시간의 추억이 묻어 있기에 충분하다.

내 삶도 내 추억으로 아름답다.

11

Nov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

November



1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_{음10.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_{음10.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집을 나서는데 차가운 바람이
나의 옷깃에 스며들며
겨울이 가까웠음을 알린다.
산행을 끝낼 때쯤에는
구름 무리들이 어슬렁 거리기 시작한다.

석양의 찬란한 햇빛은 노을을 만들고,
구름 무리와 산마루 사이에는
주홍빛을 쏟아내며
달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린다.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December							

12

December



1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5

0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음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음11.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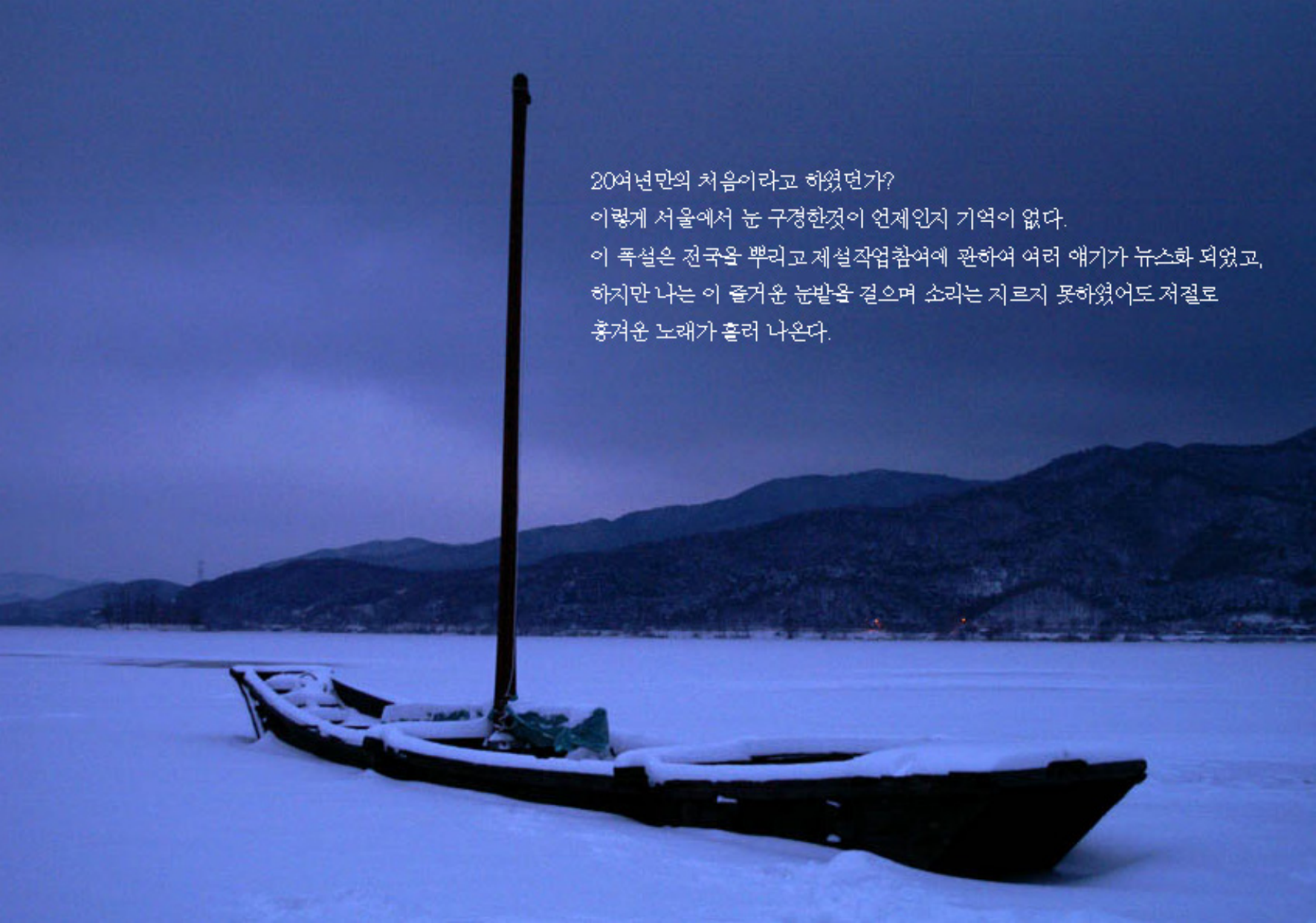
27

28

29

30

31 음12.1



20여년만의 처음이라고 하였던가?

이렇게 서울에서 눈 구경한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없다.

이 폭설은 전국을 뿌리고 제설작업참여에 관하여 여러 얘기가 뉴스화 되었고,
하지만 나는 이 즐거운 눈밭을 걸으며 소리는 지르지 못하였어도 저절로
흥겨운 노래가 흘러 나온다.